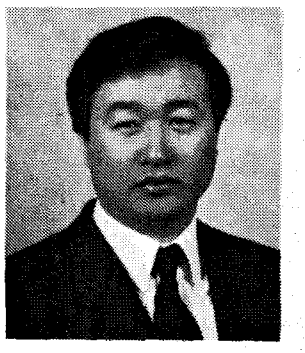
한방시리즈

바로 알고 먹읍시다!

〈3〉



신 준 식
〈 대한추나의학회 회장 본 협회이사 〉

닭

닭은 꿩과에 딸린 육축(六畜)의 하나로 원종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의 야계(野鷄)이다.

동물 중에 닭에 얽힌 이야기와 전설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신라의 계림신화(鷄林神話)를 보면 옛날부터 닭을 서조(瑞鳥)로서 신성시한것을 알 수 있으며 요즘에는 육용(肉用)과 난용(卵用)으로 닭의 존재가 있지만 우리 옛선조들에게는 여명을 알리는 보신용(報晨用)이었다. 재미있는 일화로 약60년전 자료에 의하면 함경도의 해가 짧은 어느 화전마을에서는 닭고기나 달걀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데 그것은 아마도 '보신용의 서조'하는 관념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닭의 또다른 효용으로는 투계(鬪鷄), 포계(捕繫)등의 유희용이 있다.

닭고기는 육질중에서도 가장 자극이 적으므로 노인이나 소아 또는 환자의 식료품으로서 적당하다. 즉 다른 육질에 비하여 지방이 적고 담백하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닭고기에는 백육(白肉)과 적육(赤肉)이 있는데 백육에는 혈액이 적고 적육보다 지방, 염기가 적어 그 맛이 담백하므로 노인이나 병자에게 좋은 고기이다. 생후 백일 전후에는 숫놈이 맛이 좋으나 성장하면 암놈이 맛이 더 좋다.

닭을 죽일 때에는 고통을 주지 않고 단숨에 죽이고 피를 모두 빼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산(乳酸)이 생겨서 맛이 나빠진다. 닭을 죽여서 여름에는 2일간 겨울에는 3~4일간을 머리를 위로 해서 매달아 두었다가 요리하면 육질이 분해작용을 하여 부드럽고 맛이 좋다.

닭이 약으로 쓰이는 데는 너무나 많다. 약으로 쓸 때는 토종닭을 써야한다. 우선 닭의 간은 영양가가 높은 식품인데 매일 100그램가량씩 먹으면 야맹증이나 허약한 소아 또는 병후의 회복기에 대단히 좋다.

옛 문헌을 보면 닭고기에 대한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붉은 닭고기는 허튼 보하고 속을 온하며 혈을 그친다. 능히 오랜 창(瘡)이 낫지 않는 것을 낫게 한다. 흰수탉 고기는 기미가 시고 기를 내리고 오장을 안정시키며 소갈을 다스린다. 검은 수탉 고기는 속을 보하고 통을 그친다. 검은 암탉 고기는 국을 만들어 먹으면 풍한습비(風寒濕痺), 오완육급(五緩六急)을 다스리며 태(胎)를 편하케 한다. 누른 암탉 고기는 소갈, 소변이 잦은 것과 장벽(腸癖), 설리(泄痢) 등을 다스리고 오장과 절상(絶傷)에 보익(補益)하고 오로(五勞)을 다스리며 기력을 늘인다. 계관혈(닭 벼슬의 피)중 검은 닭의 볏피는 유난(乳難)을 다스리며 닭의 피는 절상(折傷), 골통(骨痛), 복통 등을 다스린다. 닭쓸개는 눈이 밝지 못한 것과 피부창을 다스린다. 닭의 똥은 소갈과 상한한열(傷寒寒熱)을 다스리고 방광결석 및 근육경련을 없앤다.(神農本草經)

'누른 닭고기는 산후의 허약을 다스린다. 삶아 즙으로 약을 달여 먹으면 좋다. 계관혈은 중독을 다스리며 빨리 마시면 사람이 목을 매어 죽게된 것과 어린아이가 갑자기 놀라는 것을 다스린다. 모든 창(瘡)과 지네, 거미에 물린 독에 바른다. 더운 닭피를 마시면 소아의 하혈을 다스린다. 닭간은 풍허목암(風虛目暗)을 다스리고 닭쓸개는 치창(痔瘡)에 바르면 효과가 있다. 닭의 멀떠구니는 소아의 학질을 다스리고 임질과 반위(구토)등을 다스린다. 주적(酒積)을 사라버리고 모든 구창(口瘡), 아감(牙疳) 등을 다스린다. 닭똥은 기를 내리고 대소변을 통리한다.(本草綱目)

이렇듯 닭의 종류와 그에 따른 약효는 수도 없이 많다.

民間療法事典에 계관혈의 약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익사를 하였다. 익사한 사람의 부인이 급히 달려가 약을 가져다 죽은 남편의 입과 귀에 흘려 넣었다. 그러자 조금 지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물을 토하고 숨을 내쉬며 살아났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위사람들이 그 약이 어떤 약이냐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닭볏피(계관혈)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몸에 옻을 옮았을 때 닭피를 환부에 바른다. 또 닭을 털을 뽑지 않고 통째로 삶아 그 물에 목욕을 하면 낫는다고 한다. 치질에도 닭을 통째로 삶은 물에 훈(熏)을 하는데 이렇게 3번만 하면 어떤 치질이건 완치된다는 체험자의 치료담도 있다.

또한 닭고기는 마늘, 겨자, 오얏, 개의 간이나 콩팥, 토끼고기, 잉어, 생파등과 함께 먹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닭을 이용한 여러가지 처방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갑자기 기침이 나는데 : 흰닭 1마리를 술 5되에 넣고 삶아 반으로 졸여 3번에 마시고 고기도 함께 먹는다.

◎부종 : 팥 1되와 흰 수탉 1마리를 물 1말에 넣고 달여 즙을 수시로 마신다.

◎허약한 체질을 보신하는데 : 검은 수탉 1마리를 깨끗이 씻어 오미(五味)를 가하고 푹 삶아 먹는다. 혹은 구워 먹어도 좋다.

◎구토와 토식 : 검은 수탉 1마리에 고수풀 열매 반냥을 닭 뱃속에 넣고 삶아 먹는데 2마리를 먹으면 낫는다.

◎각기병에 : 검은 수탉 1마리를 삶아 멥쌀을 넣고 국을 끓여 먹는다.

◎복수가 차는데 : 누른 암탉 1마리를 깨끗이 씻어 팥 1되와 함께 삶아 낮에 2번, 밤에 1번 마신다.

◎소갈로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이 잦은데 : 누른 암탉을 삶아 즙을 차게 마시고 고기는 국을 만들어 먹는다.

◎소아가 깜짝 놀라는데 : 급히 볏피를 내어 입안에 떨어뜨리면 효과가 있다.

◎지네나 거미에 물린데 : 볏피를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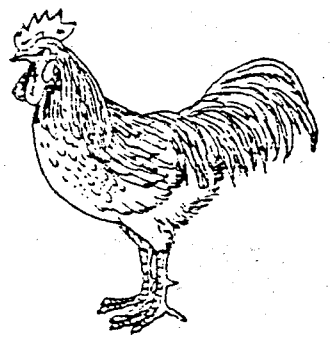
◎근골절상 : 급히 닭피를 내어 술에 타서 마시면 통증이 그친다.

◎간허로 눈이 어두운데 : 검은 수탉의 간을 1개씩 쌀로 죽을 쑤어 먹는다.

◎결석증 : 수탉 쓸개 말린 것 반냥, 닭똥을 희게 볶은 것 1냥을 함께 갈아서 온주로 1돈씩 먹으면 유효하다.

◎소변시 통증이 심한데 : 닭 멀떠구니속의 누른 껍질 5돈을 말려 대강 태워 술에 타서 먹는다.

◎풍습을 없애는 데 : 수탉의 똥을 태워 재를 돼지기름에 개어 붙인다.



닭

꿩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선 옛부터 서조(瑞鳥)로서 신성시 되어왔으며 그 색에 따라서 약으로 쓰이는 바가 모두 다르다.

자극적어 노인과 소아, 환자에게 적당
약으로 쓸땐 반드시 토종닭을 써야

「건강의 횃불」 삼일제약

당뇨병성망막증

진보된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못하는 난치병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읍니다. 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미소혈관이 분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고혈압등에 의하여 이들 미소혈관에 병변이 발생되면 다시 정상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망막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취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환자는 혈당관리, 고혈압 환자는 혈압관리가 매우 중요한 동시에 각종의 혈관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 보호제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나 혈압관리가 잘되고 있는 환자도 병력에 따라 망막증의 발병율이 증가되므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망막증의 예방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당뇨병! 왜! 후루다랜을 복용하는가?

망막증에 대한 후루다랜의 약효입증!

후루다랜®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최근 당뇨병 및 고혈압의 혈관 합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후루다랜의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국내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학교실에서 Multi Center Study를 12개월간 실시후 종합평가의 결과 후루다랜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약80%이상이 호전 또는 안정되는 양호한 성적을 얻었으며 또한 내약성도 매우 우수한 약물이라고 보고 했읍니다.
망막증의 초기단계에서 후루다랜을 투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후루다랜은 당뇨병성 백내장, 신경증 및 신증등의 당뇨병 관련합병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낸 바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미소혈관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청구권과 함께 아래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당뇨병과합병증에 대한 최자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화문우체국사서함 351
나이 : 보신 잡지명 : SP 1